

【어원 탐구 1】

어 린 이

이기문

서울대학교 명예 교수

1. 方定煥 선생의 ‘어린이’

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방정환 선생과 윤석중 선생 두 분을 생각하게 된다. ‘어린이’란 새말을 만들어 썼고 어린이날을 시작한 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이었고 그 뒤를 이어 우리 나라의 아동 문학을 꽃피우고 어린이를 위하여 평생을 바쳐 온 분이 바로 윤석중 선생이다. 특히 윤 선생이 매우 꼼꼼한 습씨로 ‘어린이’란 말의 유래를 밝혔음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‘어린이’란 말은 1923년 ‘어린이날’부터 쓰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윤석중 선생은 1920년 8월에 간행된 ‘開闢’ 제3호에 이 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. 거기에 ‘어린이 노래’라 하여 ‘잔물’이 우리말로 번역한 〈불 켜는 아이〉라는 시가 실려 있고 그 끝에 “61년 8월 15일 잿골집에서 역”이라고 적혀 있음을 찾아 내고, ‘잔물’은 방정환 선생의 아호 小波요 “61년”은 천도교의 연호로 1860년부터 쳐서 1920년을 가리킨 것이며 ‘잿골집’은 지금의 재동에 있는 손병희 선생 댁을 가리

킨 것으로 그 때 셋째 사위인 방 선생이 처가살이를 한 곳이었음을 밝힌 것이다. (《윤석중 전집》[1988, 웅진] 권20, 71~72면; 권 27, 135~136면 참고). 국 어학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자세한 고증에는 절로 머리가 숙이질 뿐이다.

윤석중 선생은 또 '어린이날'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.

"어린이날의 나이를 1923년부터 따지고 있다. 어린이 단체들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란 이름으로 첫 어린이날 모임을 가진 것이 이 해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낳기 열 달 전에 아기를 배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1년 전에 이 날을 마련하기 위해 피땀 흘린 숨은 공로자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."(《윤석중 전집》 권 27, 33면)

"그러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1922년에 천도교 소년회가 베푼 '어린이의 날'(첫해엔 '의'를 넣어 불렀다.)은 어떻게 치러졌던가? 1921년 5월에 어린이 서른 명으로 첫 모임을 가진 천도교 소년회는 소춘(작은 봄) 김기전님과 소파(잔물) 방정환님이 이끌어 갔는데 어린 그들의 약속은 '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.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'였다. 이 단체가 그 이듬해인 1922년 5월 1일로 날을 받아 마련한 '어린이의 날'에 어린이들이 대를 짜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교동, 종로, 파고다 공원, 전동, 광화문통을 돌았다. '어린이의 날', '소년보호'라고 크게 써 붙인 자동차 세 대에는 소년 회원과 청년 회원이 함께 타고 다니며 전단을 뿌렸다."(《윤석중 전집》 권 20, 70면)

이 날 뿌린 전단 쪽지에는 일곱 가지 조항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셋째 항이다. "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."(《윤석중 전집》 권 20, 71면)

여기서 우리는 삼일운동 뒤에 우리 나라의 어린이 운동이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린이를 존중하여 경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천도교의宗旨(宗旨)인 인내천(人乃天), 천인합일(天人合一)의 인간 존중 사상에서 나왔음

을 짐작할 수 있다. ‘어린이’란 말은 이 사상에서 우려난 것이었다.

윤석중 선생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밝힘에 있어 옛 신문, 잡지 등을 뒤지고 세 썩회에 보관되어 있는 전단 쪽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, 이런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, 예를 들면, 정신문화연구원의 <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>의 ‘어린이’항과 ‘어린이날’항을 보면 곧 깨닫게 된다. 여기에는 ‘어린이’란 말이 1920년에 생겼다고 하면서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1922년의 ‘어린이의 날’에 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.

2. <警民編>과 <童蒙先習諺解>의 ‘어린이’

그런데 ‘어린이’란 말이 옛날에도 쓰인 사실이 문헌에 나타난다. 필자는 지난 '95년 10월 전주에서 있는 한국언어학회 가을 연구회의 특강(제목: 현대 한국어의 어휘, 특히 신조어에 대하여)에서 이 사실을 지적한 일이 있다. 그때 필자는 <동몽선습언해>에서 원문의 ‘長幼’를 ‘얼운과 어린이’로 번역한 예들을 들었던 것이다.

- (1) 얼운과 어린이 차례 이시며 : 長幼有序(1)
- (2) 얼운과 어린이는 천륜의 차례라 : 長幼天倫之序(8)
- (3) 얼운과 어린이의 되 버터 나는 배라 : 長幼之道 所自出也(8)
- (4) 얼운이 어린이를 사랑하며 어린이 얼운을 공경후 연후에서 : 長慈幼 幼敬長 然後(9)

위의 예들은 ‘어린이’(幼)가 18세기 말엽의 근대국어에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. (3)의 ‘어린이’는 ‘어린이’의 속격형으로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. 중세국어에서 ‘늘그니’(老)의 속격형이 ‘늘그니’였음과 같은 것이다.

<동몽선습>은 근세의 서당에서 한자를 익히고 나서 처음 읽은 책 중의 하나로

매우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. 한문본(漢字懸吐本)과 언해본이 여러 차례 중간된 사실이 이런 추측을 하게 한다. 필자가 본 현존 언해본 중에서는 일본 동경 대학의 오구라문고(小倉文庫)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책인데, 권말에 “上之二十一季丁巳季夏新刊”이라 있어 정조 21년(1797)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이 한문 원문에는 한글로 한자의 음과 토를 달았으며 언해 부분은 한글로만 표기되었음이 주목된다. 위에 든 (1)~(4)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.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원문은 없이 언해만으로 된 간본이 있다. 이 책은 위에 든 언해본의 언해 부분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한자를 섞어 쓴 것을 비롯하여 자잘한 차이들이 눈에 뜨인다. 그러나 ‘어린이’가 나타나는 점은 위의 언해본과 다름이 없다.

위에 말한 특강 원고를 준비하면서, 어디선가 ‘어린이’의 용례를 또 본 듯한 기억이 있었으나, 미처 찾을 겨를이 없었다.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야 오래전에 尙文閣에서 낸 <警民編> 영인본 (<禪家龜鑑諺解>과 합본)에서 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. 안병희 교수가 개간본이라 부른 규장각 소장본(1658)에서 예를 들어 본다.(단국대학교 <동양학 총서> 6집, 1978)

- (5) 그 父부子자의 恩은과 兒은이며 幼의 義의 이심으로 謂니 :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(21)
- (6) 兒은 幼의 義의 이심으로 謂니 :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(21)
- (6) 兒은 幼의 義의 이심으로 謂니 :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(21)
- (7) 兒은 幼의 義의 이심으로 謂니 : 以其有父子之恩長幼之義也(21)

근대국어에서는 ‘어린이’와 함께 ‘어린것’이 쓰였음을 <字彙典則>(1783)이 보여 준다.

- (8) 아희들과 어린거시니 : 童穉(1)

- (9) 아희들과 어린것들이 : 童穉(2)
 (10) 알으미 업는 어린거시아 : 無知之幼稚(6)

이렇게 볼 때, ‘어린이’란 말이 18세기를 거쳐 그 뒤에도 국어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, 19세기의 문헌에서는 이 말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. 필자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하지만, ‘어린이’가 19세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아주 잊히지 않았던 것만은 말할 수 있다. 그 한 증거를 필자는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〈普通學校 修身書 卷二 教師用〉에서 찾았다. 이 책은 같은 글을 일본어와 우리말(그때 일본인들의 말로는 國語와 朝鮮語)로 위아래에 적었는데, 일본어의 osanai mono, chiisana mono의 번역에 ‘어린이’를 쓰고 있는 것이다 (한기언·이계학 공편, 〈韓國 教育史料 集成 教科書篇 13, 619~620면[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]〉. 이런 엉뚱한 책에 쓰인 것이 도리어 그 존재의 확인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.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〈朝鮮語辭典〉(1920)에는 ‘어린이’가 없음을 덧붙여 둔다.

3. ‘어리다’의 意味變化

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,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‘어리다’는 어리석다(愚)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. 누구나 〈訓民正音〉 언해본에 ‘愚民’이 ‘어린 百姓’이라 번역된 것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. 이 말의 15세기 이전의 역사와 관련하여, 〈安民歌〉의 ‘狂尸恨’을 해독함에 있어 양주동 선생이 중세국어 문헌에 보이는 ‘어려운’, ‘어러이’ 등의 ‘어렵-’(狂)과 ‘어리-’(愚)가 ‘얼’에서 나온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 것이 널리 용인되어 왔다(〈古歌研究〉 258~260면). 그러나 이 주장은 무엇보다도, 성조를 무시한 흠이 있다. ‘어렵-’은 거성·평성이요 ‘어리-’는 평성·거성이니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말이었던 것이다. 필자는 ‘어리다’(愚)와 비교됨

직한 말을 알타이제어에서는 아직 못 찾았고 다만 고대일본어의 örö-ka(愚)가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연구해 보기로 한다.

'어리다'에 '幼'의 뜻이 생긴 때는 16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. 교정청본 <小學諺解>(1588)는 이 의미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. 이 책의 원문과 번역을 맞대어 볼 때, 원문의 '少'는 모두 '점다' 또는 '저먼이, 저므니'로 번역하였고 '幼'도 대부분 '점다'로 번역하였음을 본다. '幼'를 '저먼이, 저므니'로 번역한 예를 들어 본다.

(11) 얼운과 저므니 차례 이시며 : 長幼有序(1.9)

(12) 저먼이드려 말씀홀 제논 : 與幼者言(3.15)

이 중 (11)은 '長幼'의 번역에 있어 저 위의 (1)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. 이렇게 볼 때, 15·16세기의 후기중세국어에서는 '점다'가 '少, 幼'를 겸쳐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. 그리하여 '늙그니'(老)나 '얼운'(長)의 대(對)는 '저므니'였던 것이다.

그런데 이 <소학언해>에서 '愚, 蒙'의 번역에 주로 사용된 '어리다'가 간혹 '幼'의 번역에도 사용된 예를 발견함은 여간 흥미 깊은 일이 아니다. '穉', '嬰兒'의 번역에 사용된 예도 눈길을 끈다.

(13) 어린 즈식을 : 幼子(1.8)

(14) 어린 제부터 늙음에 니르히 : 自幼至老(5.9)

(15) 점어 어려실 제 : 幼穉之時(書題 1)

(16) 나히 낄흔에 어린 아히 노르술 흥야 : 行年七十 作嬰兒戲(4.16)

이러한 변화로 '어리다'는 근대국어에서 '愚'와 '幼'의 두 뜻을 아울러 지니게 되

었다. 17세기의 예들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낸 <17세기 국어사전>(1995)에서 볼 수 있는데, 한문의 '稚子'를 '어린 조식'이라 번역한 <東國新續三綱行實>의 예들을 '愚'로 해석한 잘못이 있기에 지적해 둔다.

18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었다. 이 때의 어휘집들을 보면 <同文類解>에 '幼 어리다'(上 18), <蒙語類解>에 '年幼 어리다'(上 14)가 있는가 하면 <漢清文鑑>에는 '木了 어리다'(8.7)가 있다. <倭語類解>에는 '稚 어릴 치'(上 19)와 함께 '愚 어릴 우, 癡 어릴 치'(上 24)가 보인다. 특히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'어린이'가 이 때의 문헌에 보임은 특기할 만하다.

(17) 癡斯 어린이(同文類解 上 23)

(18) 傻子 어린이(漢清文鑑 8.30)

저 위에서 든 <警民篇>과 <童蒙先習諺解>의 '어린이'를 생각하면 심각한 혼동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.

아마도 19세기에 와서야 '어리다'의 뜻이 '幼'로 굳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. 19세기 말엽의 <한불조언>(1880)과 <한영조언>(1897)은 '어리다'(幼)와 '어리석다'(愚)가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 준다.

4. 말의 復活

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하여, '어린이'는 17세기부터 써 온 말인데 방정환 선생이 새롭게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.

모든 역사가 그렇듯이, 말의 역사에도 같은 일, 비슷한 일의 되풀이가 적지 않다. 그 한 예로 '청바지'를 들어 본다. 오늘날 '청바지'라면 누구나 미국에서 들어온 블루진 바지를 생각한다. 이 옷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행하게 되면서 '청바

지'란 말이 새로 만들어졌다.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. 그런데 이 말은 신소설(新小說) 작품에 이미 보인다. 아래의 예들을 통하여 '청바지'가 수의(囚衣)를 가리켰음을 쉽게 알 수 있다.

- (19) 순검에게 들키기만 하면 청바지는 갈 데 없으니(민준호, <추풍감수록>)
- (20) 감옥서로 가서 청바지를 입을 지경이라(민준호, <옥호기연>)
- (21) 아마 너는 청바지까지 입어 볼 모양이로구나(김용준, <황금탑>)

이 '청바지'가 얼마나 오래 쓰였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, 하여튼, 이 사실이 까맣게 잊힌 뒤에 '청바지'는 전혀 새로운 뜻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.

예전에도 '어린'이란 말이 쓰인 일이 있지만, 방정환 선생은 유년과 소년을 대접하고 남녀를 다 함께 부르기 위하여 '어린이'를 만들어 썼으니, 이 말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된 것이다. 특히 선생이 이 말에 높임의 뜻이 있음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. 역사적으로 볼 때, 불완전명사 '이'에 높임의 뜻이 없었음은 이 글에 든 옛 문헌의 예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, 방정환 선생은 '어린이'의 경우에 이 뜻을 강조하였고 오늘날 이것이 널리 용인되고 있음은, 그리하여 현대 사전들이 '늙은이', '젊은이'와는 달리 '어린이'를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.